

한·칠레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제 차례죠. (목이 잠긴 목소리에 물 한 모금 마심). 먼저 저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성대하게 배풀어주신 대통령과 칠레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스 대통령과 저는 1시간30분 가까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라고스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남겨주시면 남은 나머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라고스 대통령이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강조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웃음)

동북아와 남미 사이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

저는 라고스 대통령이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주시도록 정중히 초청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 한·칠레간 IT협력, 광물자원 협력, 그리고 IDB 가입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학술문화 교류의 증진에 있어 한·칠레협회 설립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뒷자리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한 것인지 합의한 것인지’ 문의하고 나서)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니다. 한·칠레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칠레 상호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특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이미 세계 경제 속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미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나 경제적 영역에서나, 특히 경제적 통합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 속에서 동북아와 남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동북아와 남미 사이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칠레와 한국은 두 지역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약간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 투명성,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칠레는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이상을 공유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 칠레간 FTA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됐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국 간의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표방하는 단순한 협력의 수준을 뛰어넘는 관계를 우리는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이와 같은 양국의 위상에 알맞도록 양국간 교류와 협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APEC을 잘 준비해 주셨고 성공할 것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

칠레에서 치러질 APEC 정상 회의의 정신과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서 내년에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습니다. 먼저 경험하신 칠레 정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